

성철 스님 친필 문화재 등록 난항

사찰측 “전담위원 2명, 이웃종교인으로 불교 관한 공감 힘들다”

해남식 부산시장 문화재 등록 제안, '친필문화재 전부 등록하라' 주장

성철 스님이 주석했던 부산 해월 정사(회주 전체)가 성철 스님의 유품 중 친필 10점을 부산광역시 문화재로 등록 신청했으나, 분과위원회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문화재 등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월정사는 성철 스님의 만상좌 천체 스님이 지은 가람으로 성철 스님의 생년 논문, 메모, 친필 유고 등을 경내 봉훈관에 전시·보관하고 있다.

전시작 가운데 대표작 10점을 지난해 11월 3일 부산광역시 문화재로 신청했으나 부산시는 “해월 정사에 보관 중인 스님의 친필 전부를 문화재로 등록하라”며 문화재 등록을 미루고 있다.

부산시는 시지정 문화재 신청이 들어올 경우, 문화재 전담위원 2명이 현장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문화재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에서 시지정문화재 자질 심사를 통과하면 전체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친필 10점은 문화재 전담위원 실사 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했다.

천체 스님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총 7권의 친필일지지만 국보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듯이, 스님의 친필 유고 속에 담긴 말씀과 불교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전담위원들이 성철 스님 친필 유고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데에는 종교적 견해차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철 스님 친필 유고 10점에 대한 부산시문화재 등록을 처음 제안한 이는 해남식 부산광역시이다. 허 시장은 2008년 9월 봉훈관 준공발표에 참석해, 부산시민들이 경남 합천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성철 스님을 기릴 수 있음을 반가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후 봉훈관 운영이 안정화에 접어들어 부산시문화재로 등록 신청을 했으나,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의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셈이다.

천체 스님은 “불교문화재다 보니 이웃종교인 실무자와 견해차가 있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종교를 떠나 부산시 입장에서라도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이 탄생할 수 있으니 객관적 기준과 가치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반야유치원(원장 지원) 원생들이 1월 28일 남구 문예회관에서 열린 '반야유치원 작은발표회에서 소고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 비전사, 자비의 쌀 2000kg, 반야유치원 '사랑의저금통' 전달 나눔, 올해도 주욱 이어갑니다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는 2월 4일 임춘을 맞아 신도들이 입춘기도에 올린 '자비의 쌀' 공양미 2000kg을 지역 사회복지시설 6곳에 전달했다.

보혜 스님은 “예로부터 우리는 쌀을 삶의 근원으로 생각했다. 여기에 자비의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봄을 맞이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이날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단체는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하남농협노인복지센터, 월곡2동주민센터, 두암동지역아동보호센터, 광산구협의회 등이다.

광주 주월동 소재 반야유치원(원장 지원)도 1월 28일 남구 문

예회관에서 '반야유치원 작은발표회'를 개최하고, '사랑의 저금통' 100만원을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사랑의 저금통'은 유치원생들이 저금통에 심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소아백혈병 어린이 치료기금으로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박물관 사찰 새롭게 조명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이 광주전남지역 대표 사찰의 문화재를 새롭게 소개한다. 또 1920~1930년대 유리건판 속 사진을 통해 당시 사찰의 모습도 확인하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주제는 1부 고려시대의 사리장엄, 2부 불교의식구, 3부 고려시대 사찰, 4부 조선시대 사찰로 나뉜다.

1부에서는 광주공원에 위치한 보물 제109호 광주 성거사지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기를 탐의 도면과 발견된 위치를 함께 표기하여 전시한다.

2부에서는 태안 2년(1086) 장생

사가 새겨진 범종을 비롯해 정병, 금강령, 금강저 등 청동 소재의 다양한 불교 의식구를 소개한다.

3부에서는 1980년 국립광주박물관 발굴조사 1호인 무등산 원효사 대웅전에서 출토된 동경·청동불상·소조불상 등의 유물이 새롭게 전시된다.

4부에서는 조선시대 사찰 출토품 중 현재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발굴유물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나주 불화사에서는 총 200여 점의 석조불상을 수습하였는데 이 가운데 개성 가득한 제각각의 얼굴 표정이 인상적인 나한상을 소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문민정사 석산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제 봉행

광주 문민정사(주지 법선)는 1월 30일 대웅전에서 석산 대중사 진영 점안식과 열반 30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백운 스님(부산 미륵사), 지선 스님(前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용흥사 주지) 등 20

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지선 스님은 “그동안 못 모셨던 스님의 진영을 모시게 돼서 마음이 가볍다”며 “스님께서 후학들을 위해 정진했듯이 후손들이 다함께 수행정진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석산 스님(1898~1981)은 강원도 고성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해, 부산 범어사, 백양사 등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했으며, 문민정사

불전함 '검조심' 하세요 상습 불전함 탈이범 검거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 대웅전과 지장전 불전함에서 상습적으로 시춧돈을 훔쳐온 허모(56세)씨가 2월 6일 경찰에 붙잡혔다.

허씨는 대나무 끝에 씌던 껌을 붙여 불전함의 시춧돈을 훔치던 중 CCTV화면을 통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찰관계자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불전함을 수거할 때마다 돈에 껌이 묻어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릿대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사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의 사찰에 주의를 요청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석산 스님 진영에 차공양을 올리는 지선 스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대표 고찰의 전통 '한 눈에'

2월 25일~3월 1일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호남 최대의 불교문화잔치인 불교문화박람회가 열린다.

엑스포트는 광주불교방송과 공동으로 2월 25일~3월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1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템플스테이, 불교생활용품, 사찰음식 등 다양한 불교 상품들을 전시하며 영산재, 수륙재, 법고 시연, 법문강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백양사, 송광사, 금산사, 화엄사, 대흥사, 선운사 등 호남지역 6대 본사를 비롯해 선암사,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지역사찰과 신행단체 등이 후원하고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산업 축제로 치러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행사를 주관하는 박철희 위원장은 “이번 불교박람회는 국내외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불교 관련 상품들을 전시·판매하는 문화산업전시박람회이다. 한국불교의 역사, 특히 호남지역 대표 고찰의 전통 불교문화와 현재 모습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사에서는 호남지역 6대 본사의 체험관을 설치하고 사찰홍보 및 템플스테이, 불교의 과거와 미래를 직접 소개한다. 상설 전시관에서는 불화소품전시회와 천연염색 의상전시회 등을 선보이며, 상설 무대에서는 개막 축하공연, 법고 시연, 찬불가 공연 등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불사용품	조각, 불상, 범종, 법고, 행화 등
불교용품	서적, 음반, 연등, 염주, 향꽂이 등
생활용품	법복, 방석, 다포, 기도포 등
차, 식품	자연식품 및 가공식품, 건강향방용품
사찰건축	사찰리모델링, 녹색에너지, 석재, 기와
전시	사찰 및 템플스테이 홍보관
문화행사	지자체 관광 및 특산물 홍보관, 국제불교문화전
	매일 오후 2시 선암사 영산재
법문	법고 시연, 불교무예, 차례시연, 사찰음식 전시
	백양사 주지 시공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대흥사 주지 법각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마음은 하나님께, 손발은 이웃에게'가 표시된 앞치마를 두른 사진을 표지로 한 김영진 의원의 2010년 의정보고서.

김영진 의원, '마음은 하나님께?'

광주 서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김영진 의원이 2010년 의정보고서 표지에 '마음은 하나님께, 손발은 이웃에게'가 표시된 앞치마를 두른 사진을 게재해 논쟁을 사고 있다.

광주 법륜사 월인 스님은 “특정 종교를 위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종교편향적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

최근 종교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이어, 국회의원이 특정 종교의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의정보고서 표지에 표지에 실어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한 것은 분명한 '정교분리 위배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이와 유사한 관련자료를 모아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보탑만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전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